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아침묵상이 재개 됩니다.

3. 신년주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
곁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 (12/28)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65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6.1.4 (637호)

말씀의 빛 1:6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서경열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21:29-38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하나님의 나라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1월 11일	1월 18일
최은숙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머리를 들라

현대인들은 종말을 희망보다는 절망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있던 것이 사라지며, 관계도 단절되는 종말은 절망만 남길 뿐이지 희망은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금의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인기를 잃었습니다. 시한부종말론자들처럼 종말을 성경적 성찰이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종말이 임박했음을 외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말을 현재의 삶과는 무관한 미래적 사건으로만 인식합니다. 현재와는 단절된 미래의 사건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에서 성취되는 종말론적 사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이 미래적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은 분명 미래적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질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말을 미래적인 사건만으로 간주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한 현재의 삶에서는 그저 막연한 의미로만 우리의 의식한 구석에 쳐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만 있으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존재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성전과 성전에서의 제사가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성지였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하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자 말라고 하십니다.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성 안입니다.

이것을 28절에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취지입니다. 머리를 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말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고 약속된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되면 전혀 돈이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사는 길로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사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지 않으면 내게 이득이 되는 예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머리를 들게 되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늘을 보기보다는 내 발 앞에 떨어진 현실만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